

# 도시적 人間상 연구

##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Human Being in the Contemporary Society

박성원

Park Sung Won

#### 요약

20세기 이후 우리의 경우는 숨가쁘게 유입되는 세계문화와 기존 우리 문화와의 소화 불량적 만남으로 혼돈의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반도체 수출이나 IT산업에 있어서, 최강의 기술력 보유국(保有國)이라는 자리를 점유하면서도 공허한 심정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한국의 현대사와 동시대적 상황 가운데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혼돈과 험기증을 복합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대중화(大衆化), 소비화(消費化)된 사회는 경제력 향상을 초래(招來)하였으나 그 출발은 익명(匿名)의 대중출현에 의해 가능했으며, 군중(群衆) 속에서의 고독, 소외(疏外), 익명성(匿名性), 몰개성성(沒個性性), 문화의 상품화(商品化) 등의 삶을 동반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現想)들이 도시적 인간상을 통해 드러난다. 소비문화에 노출된 채 그것이 내뿜는 시각 이미지와 유혹에 포위되어 살아가는 인간은 끊임없는 소유욕(所有慾)에 둘러싸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을 공간 안에 가둔다. 이들은 몰개성화 된 모습으로 때로는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상으로 도시의 공간에 존재한다. 이는 산업화된 도시의 파괴되어가는 자연 환경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체(象徵體)로서 인간의 소유욕(所有慾)안에 속해있는 제 3의 존재이며 도심속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초상화(肖像畫)인 것이다.

본인은 위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현대 도시문명의 현실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객관적 삶과, 익명성(匿名性)에 묻혀 표현되지 못한 욕구와 감정의 대립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생성(自生性)과 정체성(停滯性)을 제시하고자 한다.

#### Abstract

It works as intermediation of communication of publics these days. Since 20 century, We, Koreans, have established new chaotic multi culture with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other different culture from everywhere. Meanwhile, we occupied the most powerful semi-conduct and IT industry.

Within those circumstance, people feel very confused in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aspect. The society armed with economy and popularization promotes material satisfaction with this potential possibility of anonymous masses. However, it results to cause loneliness, isolation, alienation, anonymity, non individuality and commodity of culture.

In my work, such phenomenon reveals through human character in a city. People are exposed culture of consumption and surrounded and tempted by all those artificial and superficial atmosphere.

Human are possessed and exposed to attractive products and visual images. Finally they make themselves stuck in their case of this world. People lose their own identify and shape of bodies.

That is our portrait, who are living this moment. Also, this is a symbol that destroys this modern society.

As a result, I consider such aspects through those elements above to think how to keep and rethink our identity and what to do for this world.

## I. 서론

현대 사회는 대중화되고 빠르게 정보화 되어가며 물질 만능의 소비화(消費化)와 개인주의가 주된 성격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익명성(匿名性)과 소외감(疏外感)을 떨칠 수 없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맞은 이성적 가치의 공황(恐慌)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 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환경 속의 인간 모습과 갈등을 재발견하여 소비화, 정보화 시대의 인간상(人間像)을 제시하며, 문명의 발달에 따른 도시 공간에서의 삶과, 소외되고 익명화된 대중사회(大衆社會)속의 인간상과 다양한 현실을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2장에서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대 도시문명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객관적 삶과, 익명성에 묻혀 표현되지 못한 욕구(慾求)와 감정(感情)의 대립, 양면성(兩面性)을 어떠한 표현방식과 형태, 색감 등을 통해 표현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며, 자연스러움과 낯설음의 표상(表象)으로 인공물(物)과 자연물(物)의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석해본다.

## II. 본론

### 1. 현실과 미술

#### 1) 20세기 미술에서의 인간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20세기만큼 격렬한 변혁의 움직임이 지나 온 시대는 없었다. 특히 이러한 시대의 인간을 그리고자 했던 미술가들은 시대적(時代的) 요구(要求)에 응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하여 저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했으며, 그 결과 인간의 모습은 어느 시대보다

독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표현되어지며 미술 속에 드러났다. 이러한 시대적 반영에 대해 아놀드 하우스는 ‘인간의 사고란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검토나 비현실적(非現實的)인 환상보다는 인간이 처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로써 20세기 미술의 사회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미술가들에 있어서 실로 귀중한 소재였다.<sup>1)</sup>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는 ‘예술가를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 있다.’고 했는데 인류에게 유래 없이 황폐와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준 20세기라는 격변기를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작가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적 상황들을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들어낸 작가들은 수도 없이 많으나 그중 몇몇 작가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자신이 존재하는 현실의 인간을 정확히 표현한 작가로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가 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존엄성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을 파악하여 구체화 함으로써 단순한 기록화의 범주를 넘어서 인간 가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고 초월(超越)한 세계를 펼쳐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대 미술이 예술의 개념과 미(美)의 개념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나치 독일에 의해 폐허가 된 전쟁의 상처는 더 이상 그림을 순수한 조형(造形)행위의 장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尊嚴)성이 상실되고 자아와 세계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인간이나 현실, 나아가 예술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품고 그것의 탐구에 주력한 것이다. 그는 어떤 형태의 예술도 거기에 현실의 일부가 섞이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현실이 아무리 무한하고 정의되지 않는다

1) F.프라시나 & C.해리슨, <현대 회화의 원리>, 최기득 역, op. cit, p.236.

해도 그 암시는 작품을 해독할 수 있게 하는 열쇠로써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며 본질적인 자신의 현실을 열어 준다고 하였다.<sup>2)</sup>

또한 팝아트는 현실을 직접 재현(再現)하는 대신에 현실이라는 소재를 이미 미술품으로 바꿔 놓고서 묘사(描寫)하는 텍스트로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익명적인 중류층(中流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의 욕망(慾望)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팝 아티스트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팝 아트적 취향이나 지향점은 얼마간 차이를 지닌 채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독과 소외를 표현해 온 조각가로 조지 시겔(George Segal)을 들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팝 아트라기보다는 해프닝(Happening)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의학용 석고 붕대를 가지고 실물(實物) 그대로를 본뜬 그의 인체들은 그의 말처럼 어떤 사건이 급속하게 냉동된 듯한, 즉 해프닝의 어떤 순간이 느닷없는 빙하기의 엄습(掩襲)에 의해 얼어붙어 버린 듯한 상태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지하철, 역사의 대합실, 극장, 주유소, 세탁소, 간이식당, 거리, 뒷골목 등 도시의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상황 속에 내던져진 인간의 소외되고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극적이다. 시겔은 고도(高跳)자본주의 사회의 이름 없는 존재들인 시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존재하는 무기력(無氣力)과 권태(倦怠), 군중(群衆) 속의 고독(苦毒) 등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쓰래기통파의 진정한 계승자(繼承者)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한편 20세기의 가장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거장으로 프란시스 베이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베이컨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實存主義) 사상과 니

체의 허무주의라는 사상적 배경 아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시킨 후 인간의 실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자 무의식(無意識)의 세계로까지 생각을 넓혀 가면서 실제의 세계를 구축하기도 했다.<sup>4)</sup> 그가 담아낸 인간의 모습은 기본적인 본연의 윤곽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왜곡되거나 비틀려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그림은 극도로 혼란한 사회와 그 속에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대인의 상실된 인간 의식에 바탕을 두고 존재의 진실(眞實)에 가까이 접근하려 하였다. 즉 베이컨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체험을 통하여 현대인의 상실된 인간성과 절망적인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존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실존적 목표로서 인간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판화 작가로서 케테콜비츠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생산되는 모든 예술에 반대하여 자신의 작업이 어떤 목적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콜비츠는 오로지 인간의 운명과 미래에만 관심을 쏟았고 사회의 하층민인 노동자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비인간적인 존재 상황에 대해 분노, 저항했다.

콜비츠는 리얼리즘 회화의 동시대성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되었던 도시의 모습뿐 아니라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나 농촌 생활의 일상적(日常的) 진실(眞實)을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그의 작업은 대다수 판화로 이루어 졌는데 그 이유는 그녀 스스로 진품을 싼 값에 다수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시각매체라 이해했기 때문이다.<sup>5)</sup>

## 2. 대중사회와 인간 정체성

### 1) 대중사회(大衆社會) 속 인간부재(不在)

근대화 이후 우리의 생활은 물질적으로 눈부신 발

2) 박근영, <강 포트리에의 회화연구>(서울: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24.

3) 최태만, <미술과 도시>(서울:열화당), p.134.

4) H. Read, <영국의 현대미술>, 유준근 역, (서울:청우출판사, 1983), p.121.

5) Catherine Kraemer, <Kathe Kollwitz>, 이순례, 최영진 공역, (서울:실천문화사,1994), p.5.

6) Rollo May,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서울: 문화출판사, 1978), p55.

전을 이루었다. 19세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업화와 민주화에 힘입어 시민 사회의 질적 변화가 초래(招來)되었는데 이러한 현대사회를 일컬어 '대중사회(大衆社會)'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기술적 이데올로기는 이미 유토피아의 환상을 이룩하였고, 현대인은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지향주의로 가득한 삶을 영유하게 되었고, 기술의 복제(複製)성, 익명(匿名)성, 몰개성(沒個性) 등의 사회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육체의 편암함이 정신적 여유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적 만족이 정신적 만족을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불만족으로 현대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不安)의 경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은 소외감(疎外感)과 공허(空虛)함에 있다'고 하였다.<sup>6)</sup> 또한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4)는 자아를 억압과 소외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며 내적 본질로 규정하는 본질주의적인 해방의 모델을 거부하였다.

인간 소외 현상의 특징은 자기 존재의 근원(根源)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연성(偶然性) 그리고 실체(失體)성의 결핍 등이며 이것은 실존(實存)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존재는 실존을 자각하지 못하고 대중사회의 익명성 속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익명적인 대중적 삶의 일상성(日常性), 비(非)본래(本來)성 속에 젖어있는 호기심, 평균적인 막연한 자기 이해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외현상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혹은 세계로부터 이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희망이 없어지게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관계 상실로 나타난다. 이것은 상호간의 소외(疎外)로 인한 사회적인 유대관계의 상실(喪失)에서 비롯되어진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와 조직에 의하여

가능인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 무기력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停滯性)을 찾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충동을 갖고 말초신경을 자극 받고자하며 이러한 삶의 불안 요인들을 과학기술을 통하여 추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대인의 특성과 기호를 파악하여 이루어진 대안(代案)책이자 해결(解決)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스 미디어 테크놀로지'이다.

이것은 그 현란함으로 인해 존재의 우울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기술로 인간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타자에게 인식시키며 그 불안한 소외감과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그로인해 수없이 많이 얽혀있는 현대인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외로움에 의한 갈증(渴症)은 심화된다.<sup>7)</sup>

이미 현대인은 대중 속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점점 더 외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를 치유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을 하게 되면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극대화(極大化)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첨단의 기술에 더욱 더 불안한 현대인의 고독과 외로움은 증폭되는 역설(逆說)을 낳게 된다. 오히려 최첨단 기술과 정보 매체의 발달로 현대인은 허무주의(虛無主義)에 빠지게 되며 삶의 심연에 드리워진 원초적 허무의 불안은 방향 상실의 좌절 속에서 더욱 짙어지고 고통은 증폭(增幅)되었다. 즉, 21세기가 된 지금도 대중소비사회가 가져온 인간소외와 불안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sup>8)</sup>

이렇듯 현대의 특성이 극명이 들어나는 대중사회 안에는 인간의 정체성이 부재하며, 자아가 없는 익명의 도시 안에서 인간은 숨쉬며 살아간다.

7) 아놀드 하우저, 김진욱 역, Ibid, p.78.

8) 아놀드 하우저, 김진욱 역, Ibid, p.81.

본인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는데 문명의 발달과 수많은 커뮤니티 속에서 사회의 일부가 되어버린 도시인의 모습으로 익명성과 소외감에 불안해하는 현대인이라 하겠다.

### 3. 작품연구

#### 1) 작품의 전개 및 특징분석

##### ① 도시적 삶의 반영

역사 속에서 미술은 존재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것을 기반으로 삼아 왔다. 미술은 그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연장(延長)이었다. 그러나 현대 도시인의 삶은 익명성(匿名性)을 바탕으로 미술의 본래 속성을 파괴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는 밀집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문화 예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역으로 문화 예술이 도시성(都市性)을 다룰 수밖에 없다. 도시의 꿈은 역(易)도시화나 농촌과 도시의 절충 혹은 전원예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도시의 삶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삶의 방식을 반전해 나감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인들의 문화적 이상은 도시 안에서 찾아야하며 그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sup>9)</sup>

현대는 도시적 삶이 우리의 전반적 삶의 형태를 지배한다. 도시의 삶은 우리의 현실이고 곧 자연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도시의 생활에서 본래 의미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가로수 몇 그루와 화단의 꽃송이나 어항 속의 물고기, 혹은 휴가나 주말에 잠시 들르는 산이나 바다를 자연이라 믿고 있지만 그것도 자연이라 하기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서울은 자연보다는 인공적(人工的)인 빌딩 숲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으며 나뭇가지가 아닌 전기 줄과 간판들이 엉켜있

다.

이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융합되며 살아가며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경영된다.

이러한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문화와 각종 재화(財貨)와 아이디어가 생산되는 곳이며 새롭게 자리 매겨진 자연 환경이다. 소비와 상품화의 생활상은 도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 현상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이끌고 발길을 닫게 한다.

예로부터 도시는 많은 예술가들의 소재가 되어왔고, 더욱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동시대적 표현에 있어서 현대인의 소외와 그 익명성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조지시갈(George Segal)은 지하철, 극장, 뒷골목 등 도시의 일상적 장소를 배경으로 이 상황 속에 내던져진 인간의 소외되고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어느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표정 없이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걸의 <가시오, 서시오>[도판1]는 석고의 창백한 흰색과, 석고 봉대에 의해 포박당한 거칠고 둔중(鈍重)한 형태 때문에 이들이 마치 유령처럼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걸은 대중 사회의 풍속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살아가는 일상적(日常的) 도시민(都市民)의 고독한 삶을 포착한 것이다.<sup>10)</sup>

그와 비슷한 주제로 본인의 작품에 출현하는 공간은 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육면체(六面體)의 공간(空間)이다. 그림속의 사람은 방으로 느껴지는 한 공간 안에 항상 존재하며 그 공간은 도시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건물 안, 버스, 엘리베이터, 백화점의 진열장등이다.

이러한 도시의 공간에는 대부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지만 본인의 작품 속에는 단 한명의 사람만이 등장한다. 이는 대중사회의 복잡한 도심 생활이지만 그 안의 소외감과 익명성으로 인해

9) 정혜연,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자연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서울: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15.

10) 최태만, <미술과 도시>(서울:열화당,1995), p.135.

불안해하고 있는 외로운 인간의 내면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생활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웃음과 눈물, 각가지 대화를 통한 표정이 드러나지만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 도시 생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無表情)하다.

[도판2]에서 보여지듯 대부분의 인간의 형상은 테포르마송되며 표정이 들어나지 않는 무뚝뚝한 둥근 형태로 그려진다. 사람의 형상을 제외한 공간은 현란한 색(色)으로 표현되고, 그곳의 장소적 특성과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개인주의적인 도회적(都會的) 심상을 들어낸다. 또한 산업적(產業的)이고 인공적(人工的)인 도시공간은 실사(實事)적인 이미지로 차갑게 표현되었으며 그러한 공간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인간과의 융합을 위해 원래의 직선적인 느낌을 인체와 곡선으로 연결시켜 이질적인 느낌을 반감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도시라는 단어는 산업화된 공간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특징이 집중적으로 극대화 되는 곳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공간에는 다수 대중이 집결되지만 극심한 소외(疏外)와 익명(匿名)성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는 각 시대의 소외적 상황과 인간의 익명성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소재이며 본인 또한 소비화, 기계화, 대중화된 현대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선택하였고, 그런 도시를 살아가는 인간의 형상과 심리 상태를 그려냄으로써 현대 환경에 적응해 가는 인간상(人間像)을 연구하려 하는 것이다.

## ② 인공물과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현대에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인공물(人工物)들이 자연물(自然物)과 함께 존재한다. 본인은 그중에서 산업화의 산물로 대량 생산되어 적혀 나오는 육각형(六角形)의 인공물을 선택하여 이 시대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태(母胎)를 표현하고 있다.

관념론자들은 육각형의 방들이 절대적 공간, 또는 공간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直觀)을 표상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상학에서는 육면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 파편적인 삼면체가 모여 하나의 육면체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한다. 즉 파편적인 직관(直觀)들이 모여 종합적인 하나의 인식이 이루어짐을 말한다.<sup>11)</sup> 현대는 무엇이든 소비하는 시대이며 자본의 소지(所持) 정도에 따라 지식도 문화도 소유하게 되며 이데올로기의 가치조차도 결정지어진다. 그러므로 현대의 인간은 소비문화에 노출된 채 그것이 내뿜는 시각이미지와 유희에 포위되어 살아간다.

본인 작품속의 육면체는 기계화 산업화되고 물질문명이 발달된 사회와 기술지향주의적 사고에서 출발된 소비문화를 상징한다. 정확성(正確性)과 명료성(明瞭性)을 요구하는 이성의 공간이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사고의 틀이며 육면체안의 자연물과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산업 문명 시대의 제 3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사물은 소비되기 위해 생산되고, 본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쇼케이스는 소비의 논리(論理)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은 본래 가지고 있는 유용성 이외에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획일화(劃一化), 규격화된 쇼케이스는 인간의 소유욕에 따라 무엇이든 넣을 수 있고, 인간은 쇼케이스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유욕을 채워나가며 사고팔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진열해 놓고 원하는 기회에 맞게 상품을 고르게 된다.

이렇듯 본인 작품속의 쇼케이스는 현대 문화와 인간의 소비활동, 소유를 상징(象徵)하는 인공물이며, 현실에서 상품화 된 것 뿐만이 아니라 심리 속에 존재하는 소유하고픈 물체들을 가두어 둠에 따라 현실이면서도 가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적 형상을 통해 또 다른 가상적(假想敵) 현실을 구축함으로써 객관적 현실 세계와의 끊임없는 혼돈(混沌)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가상 현실과

11) 신보경, <현실속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시대적 자화상>(서울: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p.18.

실제 현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된다.

[도판4]에서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쇼케이스 안에는 갖가지 종류의 명품들이 가득차있다. 인간은 그 안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모두 다 소유한 듯 보이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또 다른 소유욕(所有慾)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미지의 사실성은 실재(實在)인 듯 보이게 하지만 실재와는 다른 형상이다. 서로 종류가 다른 명품(名品)들이 마구 섞여 진열되어 있으며 자동차가 립스틱보다 작은 크기로도 등장하고 물체의 색채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화려한 색을 띄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쇼케이스라는 절대적(絶對的) 규격의 틀거리 안에서 뒤엉켜있는 실재와 가상의 혼돈을 상징하며 소비문화가 내뿜는 이미지 속의 도시상이라 볼 수 있겠다.

[도판2,3]에는 지하철 안에 사람이 앉아있다.

지하철은 고속으로 발달한 기계 문명의 한 예로 사회 속의 사람들의 대표적 운송(運送) 수단이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듯 빠르게 움직이지만 뒤돌아보면 공허(空虛)할 따름이다.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 또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야누스적 양상이 심히 드러난다 하겠다. 도시의 사람들은 바쁜 삶과 일상에 허덕이면서도 소비와 여가에 있어서 기회(幾回)의 균등(均等)을 내세우고 네온사인과 각종 유혹에 현란한 밤 문화를 즐긴다. [퇴근길]과 [출근길]은 이러한 현대 도시가 지닌 낮과 밤의 야누스적 속성(俗性)과 공허한 인간을 드러낸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지하철은 각기 다른 생각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네모난 공간 안에 가두어 놓는다. 무표정한 얼굴로 같은 공간 안에 승차해 있지만 무언가를 갈구하며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도판2,3]속의 사람 또한 무표정하다. 지하철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공의 공간이나 그림속의 공간은 길게 늘어진 손잡이와 영화처

럼 스티치는 창밖의 풍경, 시간을 설명하는 색조 등으로 출근길과 퇴근길의 사람의 심리상태를 상징하는 육면체로서 표현되었다.

본인의 작품들 안에는 인공물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相應)하는 자연물들이 들어있으며 대표적으로 인체와 동물 등이 등장한다.

인체는 대부분 당시의 심리 상태에 따라 변형(變形)되어 그려지며 소외와 익명성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상징체(象徵體)로 존재한다.

동물은 상품화 되어 쇼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다. 세계가 인간 중심으로 산업화 되어가면서 동물과 자연은 동물원, 수족관과 같은 특정 장소에 갇혀있게 되었다. 작품속의 동물은 가까운 상점에서 기호에 따라 골라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 쇼케이스 안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자연을 이루어 살아간다. 이는 산업화 된 도시의 파괴되어가는 자연 환경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체로서 인간의 소유욕(所有慾) 속에 존재하는 제 3의 존재이며 도심 속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초상화(肖像畫)인 것이다.

### Ⅲ. 결 론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대중소비(大衆消費)사회이다. 이러한 대중소비사회는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나 그 출발은 익명의 대중의 출현에 의해 가능했으며, 군중(群衆) 속에서의 고독, 소외, 아노미, 평등 등과 함께 복제성, 익명성, 몰개성, 오락성, 상업주의에 의한 문화의 상품화, 현실 안주적 몽환 등의 삶을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문화의 엄청난 번식력과 감염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소외와 익명성은 날로 심해지며 인간은 정체성이 부재(不在)된 채로 사회를 일구어 나가기에 바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인간의 삶과 함께해 나가는 예술가들에게는 삶에 대한 사유와 균형 잡힌 현실 인식이 요구되어진다.

즉, 예술이 사회와 개인을 매개하고 들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을 상정(想定)하고, 이 시대의 담론과 소통의 매개로서 동시대(同時代)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에서 조망해 나가는 것이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생성(自生性)과 정체성(停滯性)의 부재(不在)를 타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상황을 간파하고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의 다양한 울림에 귀 기울여 가는 것으로 그간의 체증과 무기력을 소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 다양한 울림 중에 하나로 본인은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서사(敘事)들을 판화(版畫)로 표현하였고, 이 안에서 도시민이 점유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하여 개인과 우리의 담론들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내존재의 가치를 찾기 위한 발버둥을 일상 삼아 살아가는 도시민(都市民)이며 우리들의 자화상(自畫像)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서은혜 역, 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1992.
- [2] 그린버그, <모더니즘회화-현대미술비평30선>. 서울: 중앙일보사, 1987.
- [3] Jerome Stolnitz, 오병남(역),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과실천, 1991.
- [4] Friche, <예술사회학>. 김휴역, 서울: 은누리, 1986.
- [5] 게오르그 루카치, <현대리얼리즘론>. 부산: 열음사, 1986.
- [6] <미학 예술학 사전>. 서울: 미진사, 1996.
- [7] 린다 노클린, <리얼리즘>. 권은순 역, 서울: 미래사, 1986.
- [8] F. 프라시나 & C. 해리스, <현대회화의 원리>, 최기득 역, op. cit
- [9] 최태만, <미술과 도시>. 서울: 열화당, 1995.
- [10] H. Read, <영국의 현대미술>. 유준근 역, 서울: 청우출판사, 1983.
- [11] Catherine Krahmer, <Kathe Kollwitz>. 이순례, 최영진 공역, 서울: 실천문학사, 1994.
- [12]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인간과 자연>. 서광사, 1995.
- [13] Jerome Stolnitz, 오병남(역),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 [14] 아놀드 하우저, <예술과 소외>. 김진욱 역, 서울: 종로서적, 1991.
- [15] 고병익 외 등저, <현대인의 허무와 절망>. 서울: 민음사, 1986.
- [16]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권기돈 역, 1997.
- [17] Rollo May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서울: 문화출판사, 1978.
- [18] 광남신, <석판화와 스크린 판화>. 서울: 예경, 1994.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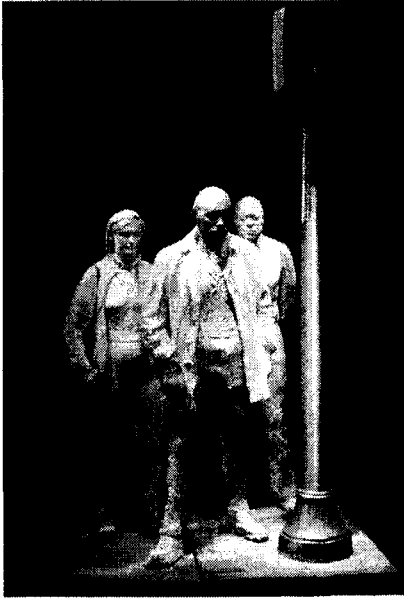


圖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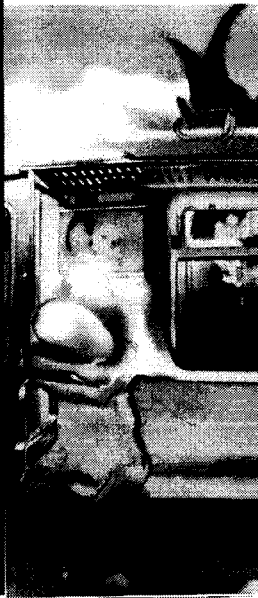


圖2



圖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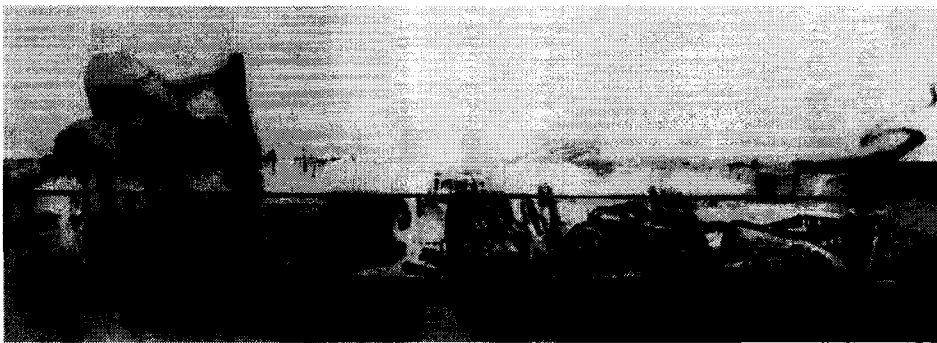


圖4

圖1. 죠지시갈, <가시오, 서시오>, 석고, 시멘트, 신호등, 409\*283, 휘트니 미술관, 뉴욕

圖2. <퇴근길>, Lithography, C.G, 70\*100, 2001

圖3. <출근길>, Lithography, C.G, 70\*100, 2001

圖4. <쇼케이스속의 몽상1>, Lithography, C.G, 200\*70, 2001